

코로나19 확산속 광주·전남 공무원 잇단 이탈...“강력처벌”

경찰서장 성추행 의혹...공직자 음주·폭행 잇따라 행정명령·복무지침 무시...감염 위험 확대 사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의 이탈행위가 잇따라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범정부적인 방역망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A서장(경무관)은 성

추행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A서장은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 모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A서장의 추행 의혹이 나온 당일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속출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술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에 A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고강도 복무 지침과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감염 위험·우려를 키운 공무원도 나왔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마케팅 과장 B씨는 유흥시설을 방문한 뒤 검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다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씨는 상무지구 유흥주점 방문자 전원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무시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군 금

정면장 C씨는 지난 7월 지역 유지들과 골프를 치고 광주고시학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 접촉 이후에도 금정면 한 골프장에서 공무원 11명과 골프·식사를 했다. 음주운전과 폭행도 잇따랐다. 지난달 19일 전남 장흥군 6급 공무원 D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화순경찰서 포 파출소 소속 E경위도 지난달 18일 화순 능주면 도로에서 만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 지난 6월29일에는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F씨가 숙취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앞 차를 들이받았다. 지난 5월27일에는 전남도의회 소

속 공무원 G씨가 무안 삼향읍에서 만취 상태로 차에서 잠을 자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려 입건됐다. 이밖에 지난 5월 장흥군 일부 공무원은 회사 자리에서 동료 간 성추행 사건에 휩싸였고, 지난 3~4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광주 지역 경찰관 2명은 강등·해임됐다. 시민단체 참여자지21은 “일부 공무원의 이탈은 방역망을 위태롭게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한 처벌·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으로 출고되지 못한 주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식당,주점 등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주류도매업체 창고에 주류가 가득 쌓여있다.

광주시, 방역 협조 안 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7명 고발

수 차례 코로나19 검사 권고에도 연락 두절·답변 거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검체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을 고발했다.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으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7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모집·인솔책' 역할을 한 목사로부터 제

출받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과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결과, 제보 등을 토대로 228명이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228명에 대해선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차례 독려했다.집회 참가자 228명 중 20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간 전파에 의한 2차 감염을 포함해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179명은 '음성'으로 판명돼 자가 격리됐다. 22명은 '집회에 불참했다'고 답했다. 3명은 연락이 끊겼고, 4명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앞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 온 뒤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휴대전화 GPS 추적에 거짓이 들어나 고발되기도 했다. 시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거나 역학조사 중 관련 동선을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숨겨진' 집회 참가자를 찾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집회 관련 감염자 중 7명은 당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집회를 다녀온 시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동취재본부**

8월 대유행 요인...“무증상·휴가철 장마·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면 큰 폭의 대규모 유행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부 벌어졌다”며 “기본적으로는 5월부터 시작된 무증상, 경증 확진자들이 누적된 지역감염이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긴 장마를 거치면서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다. 에어컨 사용량도 늘고 비가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환기를 적절히 시키지 않고, 실내활동을 많이 했다”며 “8월에 들어서 방학과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들었다. 정 본부장은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과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감염 확산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도심집회라는 (확산이) 증폭되는 위험요인이 가중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유행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노출됐지만 검사를 받고 계시지 않은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와 교인이나 방문자, 접촉자와 집회에 노출된 사람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위험요인”이라며 “반드시 늦더라도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확진자가 접촉자들 사이에서 10여명 내외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신봉우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